

<문제 1>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가,라,다,나 순이다

(가)에서 공평한 관망자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에 적용할수있게 해주는 이상적 존재이다

공평한 관망자는 타인의 욕구를 공감하고 상상력을 가진 합리적인 개인으로서 사회체제를 통제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준다. 따라서 (가)가 가장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유는 선한사람들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라)와달리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을 통해 모든 개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가)가 (라)보다 사회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라)에서 시민적 우의는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시민적 우의가 발생하면 공동체의 공동의지가 이루어진다.그러므로 집단 내에서의 개인이 집단 밖에서 개인일때보다 이기적이게 되는 다와 달리 라는 집단 내에 있을지라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부도덕적인 측면에 엄격한 모습을 보여준다.즉,개인의 도덕성이 집단내에서도 유지되는 것이다.이는 (라)가 (다)보다 순서상 앞에 올 수 있는 근거이다.

(다)는개개인이 집단을 형성할때 이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집단 이기주의 양상을 띄게 된다고 한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집단 내에서 개인은 비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사회에로부터 오로지 영향만 받는 나와 달리 다는 개인의 이기심을 드러내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보다 사회에 영향을 더 미친다.

(나)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개인의 모습이 나타난다.특정한 사회에 속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따라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거꾸로 사회가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이에따라 (나)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위치하게 된다.